지역 메아리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실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지난 5일 생활개선회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이 실시됐다.

6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생활개선회는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나갈 여성농업인 학습단체로서 여성지도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로 미래로 생동하는 부안을 위해 생활개선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농번기를 맞아 각별히 건강관리 해줄 것도 당부했다.

부안군생활개선회 김춘숙 회장은 건실한 생활개선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자고 역설하고 더욱 발전된 단체가 되려고 회원 모두가 하나 되어 단합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 강사인 한사랑교육문화연구소 최성순소장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삶!'이라는 강의를 통해 노후생활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목공예를 실습을 통하여 즐거운 교육을 즐겼다.

회원들은 가을수확을 목전에 두고 실시된 교육에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교육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본격'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매립장이 2020년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매립장의 매립공간 확보와 순환 사용을 위하여 총 사업비 90억원(국비 45, 군비 45)이 투입되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정비해 가연성·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토사를 재분류하여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재매립 및 토사는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복원화사업의 일종이다.

군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환경부 및 관련기관들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고창군, 신규시책·국가예산 발굴보고회… 내실 있는 사업 발굴

고창군이 유기상 군수 주재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군정을 추진할 신규시책과 2020·2021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 부서별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지역발전 역할 등을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 발굴한 119개 사업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또한 민선 7기의 초석을 다질 2020년 신국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59건(총사업비 2,967억원)과 2021년 확보대상사업 26건(총사업비 2,351억원)의 사업을 발굴 보고회를 통해 실질적 민선 7기의 군정의 핵심동력과 고창군의 미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선심성, soc사업 보다는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생태관광에 중점으로 하여 내실을 튼실하게 다지고 지역인재를 키움으로서 고창의 미래의 100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나눔과 봉사문화가 정착되어 군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후속사업 등을 발굴 보완해 친자연·친환경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책과 핵심사업 보고회를 통해 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전문가, 지역원로, 행정이 함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상 군수는 시책과 핵심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군민을 위해 신념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정서와 지역의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해 고창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과 무엇이 가장 군민을 위하는 일인지 심도 깊게 검토·보완해 추진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북면초등학교에서 관내 농촌마을 주민들과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농촌재능나눔 축제를 연다.

'1% 재능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

정읍시 · 전북과학대학교, 오는 12일 농촌재능나눔축제 개최

정읍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북면초등학교에서 관내 농촌마을 주민들과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농촌재능나눔 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대학생들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고령화된 농촌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시는 전북과학대학교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6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7개 학과 재학생들과 교직원봉사대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함께 시력검사, 당뇨검사, 이·미용서비스, 행복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이만세교수의 재치 있는 사회와 흥겨운 식전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재능나눔 축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행복을 주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재능나눔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돼 오고 있는 행사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방하천 정비사업 위치도.

부안군, 재해예방사업 261억원 확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부안군은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261억원의 예산을 확보되어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게 되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10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80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7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확보된 재해예방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여 확정된 노력의 산물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로 선정된 직소천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부안을 알리는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재원 안전총괄과장은 "하천사업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등 상습 침수피해 예방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에 261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및 풍수해에 강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민선7기, 주민배심원단 본격 운영

민선7기 정읍시정의 공약실천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단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정읍시는 지난 5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유진섭 정읍시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김기홍 본부장, 주민배심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주민배심원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진섭 시장은 제1기 주민배심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무엇보다도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약 사항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배심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19년 10월 4일까지 활동한다.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 여건상 시정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심사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권고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위촉식에 이어 주민배심원단은 1차 예비회의를 가졌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온 분임촉진자 1명과 8명의 주민배심원단이 1개분임이 되어, 총 5개의 분임을 구성했다. 민선7기 공약은 총 87건이며 이중 이날 회의에서는 23건(공약변경 7건, 논의필요 15건, 추진불가 1건)에 대해 각 분임별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졌다. 공약 심의 목록은 ▲역사탐방 드라이브 길(이팝나무길) 조성 ▲실버영화제 및 상춘곡 문학제 확대 ▲태인·고부 동헌 복원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 ▲시민 체육시설 사용요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시민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소성면 작은 목욕탕 건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읍천 꽃길 조성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내장천 변로 확·포장공사 ▲조곡천 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호남선·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 ▲LH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저상버스 도입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 등 총 23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